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a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뉴욕정비(브롱스)
2801Webster
(718) 295-3252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표 : 김 윤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300 맨하탄(212)
947-8382(B)뉴저지(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의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연(스테파노)치과
콜럼비아 치과대학교 졸업
엘름허스트(시립병원 앞)
(718)426-4343,(주차완비)
베이사이드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게지
대출까지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Julian,LLC
150-05 노던(150가)
2Fl (플러싱)
(718)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여 이발 및 미용
747센츄럴팍(100번도로)
(914) 725-0747

김 영 관 회 계 사 무 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번역 종업원상해
(718)961-4024(2)

광고모집

제1681호 2011,9,25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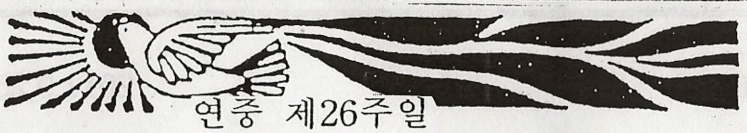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오 21,28-32)

주임 신부 : 남 시몬(헤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26주일

¤ **입당송** (다니 3,29.30.31.43.42)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계명을 따르지 않았사오니,
당신이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 진실한 판결이었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대영광송>

¤ **제1독서** (악인이라도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8,25-28)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25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 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26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27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28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25(24),4-5.6-7.8-9(◉ 6ㄴ))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1.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2.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3.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제2독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1-11)

형제 여러분, 1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2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3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4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5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
하십시오. <6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8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10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11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맏아들은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28-32)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29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31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전 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9/25 8시	김 미수	윤 광석	윤 기애	정 태영
11시	이 상식	김 형남	김 여경	손 대심
10/2 8시	이 윤형	한 성천	한 희자	방 경숙
11시	이 희양	김 종철	박 은영	이 종숙

복 사 : 조 중형 & 박 지성 엄 수연 & 김 크리스티나

봉헌자 : 장윤화&박증환 가족 다음주 : 김성호&최충규 가족

헌금봉사 : 샛 별 Pr 다음주 : 자비의 모후 Pr

운전봉사 : 정 우충 다음주 : 양 경식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안상용(생미사) : 지레오[희남]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조상님(연미사) : 김마테오[창규] 봉헌

추한준(연미사) : 추바오로[성태] 가족봉헌

민순규(연미사) : 김야고보[부균] 가족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조요한[용국] 봉헌

조상님(연미사) : 안안티모[장환] 가족봉헌

차정례(연미사) : 오필립보[은선] 가족봉헌

전우진 조상님(연미사) : 전패트릭[영달] 가족봉헌

성 가

입당 : 찬양하라 (성가 4)

봉헌 : 순교자 믿음 (성가 286)

성체 : 사랑의 신비 (성가 174)

파견 : 주님을 찬미하라 (성가 15)

교회 소식

(1) 순교자 성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한국순교 성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9월이 되도록 합시다. 저녁 기도 후에 순교자 성월 (기도서 33 P)를 바치도록 합시다.

(2) 꾸르실료 소식

남성 제33차 꾸르실료 피정이 (10월20일(목)-23일(주일)) 뉴톤 분도 수도원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간사 정우충(제임스) (917) 325-0779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레지오 마리애 봉쇄교육 및 옥외행사

레지오 마리애 봉쇄교육(NJ 베네딕도 수도원)에 우리 본당에서 신홍원(예레미아), 우희정(아네스) 두분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은총 받고 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레지오 옥외행사가 오늘(주일) **오차드비치** 에서 있습니다.

(4) 성령세미나 소식

미동북부 성령세미나가 10월28일(금)-30일(주일) 까지 마리안 슈라인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회장 최일환(니콜라오) (347) 573-1417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5) 성모회 피정소식

성모 회 피정이 **"매력 있는 여자"** 란 주제로10월9일(주일) Ardsley에

있는Franciscan Retreat Center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한해동안 기쁘게 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도록 합시다.
신청은 성모 회장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6) 성 정 마르꼬 야유회 소식

성 정 마르꼬 야유회가 10월9일(주일) 8시 미사후 (버스출발 9시30분) **베어 마운틴** 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7) 10월 달 구역회

주제 : "신자들의 영성(신심) 생활"

ⓐ 영성생활 이란? ⓑ 영성생활의 목적 ⓒ 영성생활과 기도

(8) 2차 헌금(St. Joseph's Seminary)

오늘 연중 계획에 의거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9) 본당 모임

- **연령회** 모임이 오늘(주일) 11시미사후**(12시30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 서부 웨체스터 구역회가 오늘(주일) 저녁7시 김만석(요셉) (347)-677-2702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뉴저지 구역회**가 10월1일(토) 저녁7시 추성태(바오로) (201) 933-0035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동부 브롱스 구역회**가 10월2일(주일) 오후2시 김원식(펠릭스) (646) 331-2056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주소: 43-39 171St Flushing (산수갑산 II) 뒤편.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이번달(9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중부 브롱스**구역입니다.
다음달(10월)은 **서부브롱스 및 밴하탄** 구역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114.00
교 무 금 : $ 3,260.00

장윤화(8.9)	강순연(9)	이상식(8-9)	정복기(7-10)
황보열(완납)	김원숙(5-8)	송재근(완납)	추인숙(8-9)
김문배(8)	신대철(9)	유휴현(7-9)	서명희(완납)
김종구(7-9)	홍순복(완납)	김원식(8)	박효순(9-10)
윤인자(8)	김동현(9-10)		

바보 김 수환 추기경님

한국의 최초 추기경이신 김 수환 추기경님은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1922년 5월 8일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나셨고, 2009년 2월 16일 서울에서 선종하셨다. 추기경님이 9살 되던 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께서 장사를 하시면서 어렵게 키우셨다. 어린 시절 추기경님의 꿈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였지만, 어머님께서 신부가 되라고 하셔서 11살에 소신학교에 들어가셨다고 한다. 소신학교를 거쳐 서울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 조치대학에 유학을 하셨다. 1951년 29세의 나이로 사제가 되시고, 1966년 5월 3일 43세의 젊은 나이에 주교가 되셨다. 그리고 다음해 서울 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셨다. 추기경님께서는 서울 대 교구장이란 자리가 하도 불편해서 어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고 싶다고 하셨다지만, 추기경님께서는 그곳에서 30년을 보내셨다. 1969년 4월 28일에는 47세의 젊은 나이로 추기경이 되셨는데 그 당시 전 세계 134명의 추기경중 김 추기경님께서 제일 연소하셨다고 한다. 추기경님이 되시고 로마로 가셔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선출하시고 귀국하시는 길에 뉴욕에 들리셔서 교황님 선출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던 추기경님이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나는 지금도 그 때 추기경님을 잊을 수가 없다. 추기경님께서 명동성당에 계시는 동안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추기경님께서는 시국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적 발언을 하셨고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을 서셨다. 한번은 데모하던 학생들 400여명이 경찰에 쫓기다 명동성당 안으로 피신을 했다. 당국에서는 학생들을 내 보내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그 때 추기경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 한다. "당신들은 제일 먼저 나를 밟고 다음에는 신부들을 밟고 다음에는 수녀들을 밟고 성당 안으로 들어오시오" 하고. 결국 경찰들은 물러갔고 학생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추기경님 형님(김 동환)도 신부가 되셔서 일생을 나병화자를 돌보셨다고 하는데 추기경님께서는 형님께서 그렇게 불상한 이들과 함께 사시는 모습을 항상 부러워 하셨다고 한다. 추기경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정을 느끼셨고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제일 존경하셨다고 한다. 추기경님께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잘 살면서도 그 사랑을 마음깊이 깨닫지 못하고 사니 나는 바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스스로 바보라고 하셨다. 하지만, 추기경님께서는 은퇴를 하면 운전을 배워서 혼자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추기경님의 그 소박한 바람만 보아도 추기경님께서 얼마나 당신 자신을 위한 삶 보다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신분인지 알수있다. 우 몽은